

다음 내용을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해봅시다.(파란색 글씨를 읽으며 인도하면 됩니다.)

## 오늘 해야 할 일

1. 오늘부터 가족예배가 있는 날까지 매일 저녁 가족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1) 온 가족이 함께 가족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게 해주세요.
- 2) 가족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 3) 가족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 지혜를 주세요.

2. 이번 주간 가족예배 순서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순서를 알려줍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가족들과 함께 순서를 정합니다.)

[기도]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기도를 준비하도록 인도자가 이야기 해줍니다. 기도내용은 순서지를 따라도 좋고, 순서자가 스스로 준비해도 좋습니다.

[말씀]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자 순서지를 보여주고 준비하도록 합니다.(인도자가 맡아서 해도 좋습니다.)

## 가족예배 10분전

예배 준비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에게 예배시간이 10분 남았음을 알려주고 함께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시작 10분 전에는 찬송가 연주를 틀어놓고 예배 장소를 세팅하여 가족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를 준비해요.]

## 가족예배 5분전

예배 장소 세팅이 끝났으면 성경책과 순서지를 준비하고 가족예배 장소에 모여서 각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질 가족예배를 준비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 사도신경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며 가족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시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 기도

기도순서자가(아빠, 엄마, 동생, 나) 기도해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가족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기도자가 되어 기도를 준비합니다. 순서지에 있는 내용 또는 기도자가 준비한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 찬 송

함께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반주에 맞추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음원 파일을 준비해서 보내드립니다.

## 말 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TV나 SNS를 보면 사람들의 화려하고 좋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화려하고 좋은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부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예쁘고, 멋진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이 많은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등등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부정적인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품이 아닌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드신 바라의 원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상품은 비교를 통해서 안 좋은 것은 사라지고 더 좋은 것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작품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카소의 작품과 반 고흐의 작품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은 상품이 아닌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80억 인구 중에 나와 동일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조차 세상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 내게 비교될 때, 그 비교로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최고의 상품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사람을 실패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품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품의 가치는 작가가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정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의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느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걸맞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의 가치를 예수님과 같이 최상의 가치로 정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다. 비교의식을 버리고 창조의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가족되길 바랍니다.

### 은혜선포

서로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 우리가족 신앙스토리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읽고 함께 나누어봅시다.

1. 혹시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러워했던 부분이 있나요?
2. 나의 외적인 모습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위로나 은혜를 나누어봅시다.

###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가족미션

가족끼리 서로의 얼굴을 그려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적어봅시다.